



## 고향으로 귀환한 사람들

### 스가랴

1:1-6 하나님께 돌아오라

1:7-6장 환상들

A. 세계적 변화에 대한 환상

1장a 세상을 돌아보는 말들

1장b 네 뿔과 네 일꾼들

B. 회복과 임재에 대한 환상

2장 측량줄을 지닌 사람

3장 여호수아와 제사장의 옷

4장 순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

C. 심판과 정결에 대한 환상

5장a 날아가는 두루마리

5장b 예바 속 여인

6장 4대의 마차

7-8장 금식, 회개 촉구

7장a 사절단, 금식에 대해 물음

7장b 선지자의 응답

8장a 하나님, 시온 번성케 하실 것

8장b 강건하라, 금식이 축제가 될 것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물려올 것

### 9-11장 회복과 파멸

9장 시온의 회복

10장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

11장a 나무와 목자들의 슬픔

11장b 목자 이야기

### 12-14장 전쟁, 정결, 재창조

12-13장a 전쟁과 정결

13장b 거짓선지자/목자의 제거

14장 왕에 대한 찬송

### 참고도서

두란노 How 주석

엑스포지멘터리 주석

한권으로 마스터하는 구약

(Lesen und Verstehen, 헤르만 만케)

전문가로부터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19, 그 이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예상치 못한 난국 가운데 앞으로의 일을 묻고 관심 갖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인 듯 보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때로 멈추기도 하고, 뒷걸음치기도 했지만,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경로를 재탐색하며

때마다 주어진 시대적 과업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도 그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성전 완공은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었지만,

모든 것의 완결과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 건축한 성전이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비해 참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료나 외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축소된 듯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작은 일의 날(4:10)'이라며 실망하고 멸시했습니다.

이 때 스가랴는 하나님 백성이 바라보아야 할 <그 이후>,  
<하나님 나라의 전망>에 대해 선포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거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을 떠났습니다(겔10).

성전이 성전인 것은 외적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의 컨디션이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분,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백성들은 듣고,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온전한 관계를 누립니다(10:6, 12).

스가랴는 축소된 성전으로 의기소침해 하는 백성들에게

<그 이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 한 번도 축소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초유의 사태를 맞아 가까운 미래조차 예상할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상황을 진두지휘 할 강력한 지도자를 찾게 됩니다.  
왕을 빼앗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해도 늘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 왕의 도래와 통치에 대한 선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요, 환희였습니다(9:9-17).  
<그 이후>에 있을 모든 문제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한 왕이시며(9:9)  
평화의 왕인 동시에(10절) 혼란한 세상을 강력하게 바로 잡으실 용사입니다(13-17절).  
하나님은 그분의 양떼를 구원하실 것입니다(16절).  
여호와와 그의 이름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평화와 승리의 완전한 누림이 올 ‘그날’이 올 것입니다.

축소된 성전, 축소된 일상, 축소된 사역 속에서  
<그 이후>는 두려움과 불안, 미지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이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도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그 이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시대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일하시고,  
새로운 현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